

[몸짱 의사의 4개국 어학연수 도전기]

코로나 격리 외로움 달래주는 페루 국가 대표 술은?



리마= 글·사진 김원근 서 울대 흥부와외 명예교수

코로나19로 강제적인 사회격리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나마 위료가 되는 것은 페루의 다양한 음료와 술이다. 술에 관한 책을 여러 권 펴낸 필자로서는 페루 어학연수를 결정하고부터 이곳의 술 문화에 대한 기대로 부풀어 있었다.

페루에 도착하면 누구든 두 가지 음료를 모르고 지나칠 수는 없다. 하나는 치차모라다(chicha morada)이다. 안데스산맥 원산의 자색 옥수수를 주재료로 한 음료수인데 자색 옥수수는 수퍼푸드의 리스트에도 자주 오르 내리는 식품이다. 치차모라다를 만드는 방법은 먼저 자색 옥수수에 파인애플 껍질과 맴브리요(교일의 일종) 조각을 넣은 뒤 향신료로 약간의 계피와 정향나무 꽃의 마른 꽃봉오리를 첨가한다. 그

리고 충분히 끓인 뒤 걸러서 식힌다. 취향에 따라 적당량의 설탕과 레몬 등을 첨가해 주면 된다.

치차모라다는 페루의 국민 음료수라고 불릴 만하다. 국가비상사태 전 어학원 수업을 마치고 점심식사를 하기 위해 인근 식당에 들렀다. 식전 음료로 한 잔에 6술(2100원) 하는 치차모라다를 시켰다. 이어 나온 음식을 먹으면서 문득 주위를 보니 식당 안 손님들이 모두 치차모라다 한 잔씩을 앞에 놓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떤 슈퍼마켓을 가도 눈에 띄는 장소에 치차모라다가 적지 않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페루의 대표 음료수는 최근 우리나라 여행객들 사이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잉카콜라다. 도발적인 논란에 대한 궁금증으로 페루를 방문하는 여행객들에게는 반드시 맛봐야 할 음식 리스

트에서 빠지지 않는다. 맛은 우리나라의 미란다와 비슷하다는 사람도 있고, 사이드에 비타500을 탄 것 같다는 사람도 있다. 잉카콜라는 1935년 한 영국계 이민자(Joseph Robinson Lindley)가 만들어 리마 남쪽 지역인 이카(Ica)에서 처음 판매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코카콜라의 판매량을 능가하는 제품 중 하나로 꼽힌다. 다른 하나는 스코틀랜드의 아이른브루(Irn-Bru)이다. 결국 코카콜라 측은 1999년 당시 3억달러를 들여 잉카콜라를 사들였다.

페루 국가대표 술은?

술에 관한 이야기도 빠뜨릴 수 없겠다. 주류계는 국가대표급인 포도 증류주 피스코를 중심으로 맥주, 와인이 다양하게 있다. 지역 특산 맥주가 많지만 쿠스케냐(Cusqueña), 필센카야오(Pilsen Callao), 크리스탈(Cristal)이 페루의 3대 맥주라

고 보면 된다.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것도 단연 이 둘이다. 3가지 맥주를 포함해 페루 내 판매량이 높은 7가지 맥주는 모두 '바쿠스(Bakus)'라는 대형 양조그룹에 속해 있다.

이 3대 맥주 중에서도 필자가 꼽는 최고는 단연 쿠스케냐이다. 쿠스케냐맥주라는 뜻의 쿠스케냐는 '도라다(dorada·황금색 맥주)' '로하(roja·붉은색 맥주)' '네그라(negra·흑맥주)' '트리고(trigo·밀맥주)' 네 종류가 있다. 이 중 '도라다'가 가장 보편적이고 인기가 많다. 100% 보리만 사용하며 사스(SAAZ) 홉을 사용해 깊은 풍미가 있는 라거 맥주이다. 반면 필센카야오와 크리스탈은 가벼운 풍미의 라거 맥주로 아메리칸라거와 비슷하다. 대중적인 맛으로 페루 국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맥주가 나름대로 경쟁력

을 갖추고 있는 데 비해 페루의 와인은 이웃 국가 칠레와 아르헨티나보다 초라한 위치에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거론되고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칠레나 아르헨티나의 경우 와인에 대해 강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유럽계 이민자들의 적극적인 개척 정신이 있었던 데 반해, 원주민이나 메스티소 문화가 상대적으로 강한 페루에서는 와인에 대한 열정이 부족했던 이유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페루의 와인 산업이 아주 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리마 남쪽에 위치한 이카주를 중심으로 한 와인 생산은 세계적인 포도 품종들을 사용해 대내외적으로 어느 정도 존재감이 있다.

그중 상당히 재미있는 종류의 와인이 있다. 바로 '보르고냐'라는 포도 품종으로 만든 '세미세코(semi seco)' 형태의 와인이다. 영어로 '세미 드라이(semi dry)'에 해당하

▲ 1. 잉카콜라 / 2. 페루의 3대 맥주 / 3. 쿠스케냐 맥주의 4종류 / 4. 치차모라다

는 이 와인은 단맛이 상당히 강해 코르크를 여는 순간부터 달콤한 향이 코에 느껴질 정도다. 때문에 일부 와인 비평가들은 "진정한 와인으로 부르기 민망하다"는 혹평을 하기도 하나, 페루 내에서는 와인 소비량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있다. 보통 1만원대에서 시작하는 일반 와인에 비해 5000~7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아마 저렴한 가격이 인기를 끄는 데 큰 몫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보르고냐'라는 포도 품종은 국제적으로는 '이사벨라'라는 이름으로 통한다. 다만 페루에서는 유명한 프랑스의 와인 산지인 '부르고뉴'를 뜻하는 '보르고냐'로 불리고 있다.

마지막으로 피스코는 포 (...3 페이지에 계속)



2019 Q5

The Fall for Audi Sales Event.

Lease starting from **1.48%** up to 48 months* | Up to **\$4,500** Audi Credit*

Lease a new 2019 Audi starting from 1.48% for up to 48 months! PLUS, receive up to \$4,500 Audi Credit on select models. Certain conditions apply. AMVIC-licensed business. This offer ends September 30th, 2019.



2019 Q7

www.glenmoreaudi.com

Security Deposit Waived for 2019
A6, A7, A8, Q8



2019 S4



정 병 호
HENRY JUNG
Audi Brand Specialist

Sales Professional Specializing in Korean Client

Tel: 403.701.3533
henryj@glenmoreaudi.com
Glenmore Audi (AMVIC Licensee)

25 Richard Way SW, Calgary | 403-568-2834